이재명, 광주 7대 공약 확정…"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육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민·군공항 통합 등이 포함된 광주지역 7대 공약을 공개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광주 7대 공약은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국가 주도 민군공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이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AX 실증밸리 연계 초거대 AI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과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골자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양자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고 국가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구현 등 양자·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기반을 토대로 초격차 기술 선도도시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또 광역 내륙 도시권 주변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스마트그리드 연결,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광주~대구 분산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햇빛 소득과 일자리 모델 구현을 위한 RE 100 스마트 산단 조성도 진행한다.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구축을 통해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 물류를 통합하는 핵심 거점을 마련한다.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에는 AI·모빌리티 융합 '메가샌드박스' 구축과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인 AIMO(AI·Mobility) 커넥티드 MoT(Mobility of Things) 플랫폼 개발이 포함됐다.

지역소멸과 불평등, 양극화 심화 대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국립 문화시설 유치(국립현대미술관·역사박물관), 공공기관 이전(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캠퍼스, 포스트 뮤직 아레나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 5·18구묘역 역사관 건립 등 국립 망월동 5·18민주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노벨문학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인 광주 5·18 주요 사적지 보존 활용에도 나선다.

더불어 영산강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 시민친화적 광주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 등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 도시'를 조성해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 및 홍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양자 컴퓨터, 신약 개발 등 미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광주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된 '서남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민주당, 영호남 화합 합동 유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남도당이 20일 동서화합의 상징적 장소인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 합동 유세'를 열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김문수 '범보수 단일화·반이재명' 결집 안간힘

'반명 빅텐트' 불씨도 사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범보수 단일화의 문을 열어둔 채로 '반명(반이재명) 표심' 결집을 통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대선이 2주일 남은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여부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8%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단번에 뛰어넘기는 어렵지만,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으로 당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당 공식 라인은 이준석 후보를 향한 단일화 메시지를 공개 발신하고 있고, 물밑에서도 김 후보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B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의 대표를 했고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이끌어낸 훌륭한 분인데, 또 역시나 우리 당에서 잘못해서 당을 나가게 했다"며 이 후보의 탈당 과정에 있었던 당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보고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도 크게 열려 있다"며 "(이 후보 입장에서도) 앞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이 시작되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동시에 반명 표심 결집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일화 성사를 위해서라도 김 후보가 자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당내 인식이다.

김 후보는 도덕성·청렴성을 유세의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다. 같은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남은 TV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의혹에 초점을 맞춘 공세를 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을 넘어서는 '반명 빅텐트'의 불씨도 꺼트리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옛 민주당 출신 인사들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를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AI 에너지 신도시 등 대선공약 요청

김성환 민주당 의원 만나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전남도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핵심현안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비롯해 나주 에너지 AI 모델시티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건의했다.

또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 육성 등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해결과제들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들인 만큼 대선 공약에 최종 반영되고,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남이 제안한 과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전략이라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정책을 적극 검토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근산 기자

김혜경 여사, 6일만 다시 광주서 '조용한 내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6일 만에 광주를 찾아 '조용한 내조'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20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복지시설에서 배식봉사를 한 뒤 서구 쌍촌동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사회적 약자들과 잇따라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김 여사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관장과 직원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한 뒤 자립준비청년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4일 남구 한 노인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18 희생자 가족과 만나는 등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